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룻 1:16-17절)

룻기는 참으로 극적이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룻기는 괴테, 번연, 밀턴 같은 세계적인 문학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책이기도 합니다. 괴테는 '룻기는 윤리적인 논문이자 전원 문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루돌프 알렉산더 슈뢰더는 '이 세상의 어떤 시인도 룻기보다 더 아름답고 짧은 이야기를 쓴 적이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가 겪어 왔으며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삶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1.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 그 서두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 하던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땅을 피하여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떠나는 가정이 있었으니,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말론과 기론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가장인 엘리멜렉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두 아들은 모두 이방여자인 모압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고난이 계속 됩니다. 그 땅에 거한지 십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상의 환란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비참한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아내 나오미는 그들이 만난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룻1:13)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룻1:21)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창세기 19:31절 이하를 보면 죄로부터 시작이 된 땅입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근친상간을 범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모

압의 신은 전쟁의 신이요, 음행의 신입니다. 모압은 율법에 의하면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암몬사람과 모압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23:3)'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이 바로 모압땅입니다.

반면에, 그들에 떠나왔던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은 특별히 축복의 땅입니다. '유다'의 의미는 '찬송'이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란 뜻입니다. 찬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훗날 그곳에서 기독교 즉, 교회의 출발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 우상숭배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시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연탄을 만드는 공장 마당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탄가루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웨딩드레스가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웨딩드레스는 검은 먼지로 더러워 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면 경건함을 잃어버립니다. 경건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경건함을 잃어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이단과 세상 철학을 많이 접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를 간다고 하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박목사, 밴쿠버 갈 때는 와이셔츠는 하나만 가져가도 돼!"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밴쿠버는 공기가 깨끗해서 일주일 입어도 목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밴쿠버를 여행하는 동안 정말 와이셔츠 카라를 날마다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거의 때가 묻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후배 목사와 함께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간단한 정비를 하느라 자동차 보닛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가 타던 차가 10년이 넘은 중고차인데 엔진부분에 먼지가 거의 없이 너무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동차 엔진 청소를 했냐고 물었을 정도입니다. 아니, 자동차를 처음 인수해 왔을 때처럼 깨끗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엔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을 달리다 보니까 엔진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결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곳과 경건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건함과 성결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의 가장이 엘리멜렉 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삶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곳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이유도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이유는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돈' 때문입니다. 물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물질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진정한 축복과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의 결말은 좋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2. 서로 사랑하라!

룻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가문에 희망과 소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부간의 사랑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가목한 여인들의 마음은 결국 그들의 가정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부간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효'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반복하여 그들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들을 자기가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며 그들은 부둥켜안고 소리를 높여 읊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 주는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예를 표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1:15-17)

참으로 착한 며느리입니다. 자기야 젊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늙은 시어미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

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홀로 살아갈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착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에 좋은 며느리입니다.

고부간의 사랑은 어느 한 편이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철없는 자신의 딸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어 주셨듯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발을 씻기어 주듯 사랑해야 합니다. 며느리 역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시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사랑을 해야 행복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부하를 동생을 생각하듯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은 상사가 자신을 동생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여 더욱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윗사람이 잘 해주면 예의와 질서를 잃어버리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경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조금 예의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식이 조금 예의가 없어도 귀엽게 받아 주듯이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젊은이들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을 만나면 깍듯이 예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섬겨 주십시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육관 옥상을 둘러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뎈 옥상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전도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장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남전도회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아무개 장로를 데려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교회 부흥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그 사건이후에 그 교회가 몇 배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3. 보아스를 만나라!

룻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보아스를 만나라!" 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흉년은 다 지나가고 풍년이 들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청년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도 힘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이미 고인이 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보아스의 눈에 새롭게 들어오는 여인이 있으니 바로 '룻'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이라는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심을 베풀습니다. 이 사실을 집에 돌아와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우게 만들어 줍니다. 보통 시어머니들 같으면 일은 안하고 연애하고 돌아다닌다고 난리를 칠 터인데, 이 시어머니는 참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손자 오벳을 키우며 며느리 룻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훗날 오벳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28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룻기서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므로 인생이 바뀌어 졌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과 초라함에서 부유한 농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룻의 신랑이 보아스 라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이 해피엔딩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해피엔딩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인 임종을 지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직전에 아주 무서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찬송을 불러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방금 전 무섭고 온 몸에 힘을 주던 경직됨에서 해방되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 "목사님,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라고 전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인생이 다하여 죽을 때 만나지 마시고,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하고 재미가 있고 응답 받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한 것입니다.